완주군, 사전감사로 예산 절감

공사 · 용역 · 물품구입 계약전에 타당성 검토

완주군이 민선6기 출범 이후 일상감사 등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완주군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206건의 각종 용역, 공사, 물품구입 등에서 총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를 통해 119건에서 9억원, 계약심사에서는 87건, 10억원을 각각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일례로 전주와 완주를 연결하는 왕복6차로의 교량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이 빠르고, 저렴한 교량신축 이음장치의 공법을 변경하여 8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키도 했다.

완주군은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박성일 군수의 소신에 맞춰 민선6기 출범 이후 기존 적발위주의 사후 감사제도에서 벗어나 사전 컨설팅감사제를 도입했다.

이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일상 및 계약심사 활성화는 예산절감은 물론, 완주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 청렴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는 전문성 확보를 통해 보다 꼼꼼한 검토와 빈틈없는 재정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토목·건축·전기·통신·전산정보·조경·문화재) 직렬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일상감사팀(비상주)을 운영하고, 보조금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전컨설팅감사제를 확대하여 소중한 혈세를 아끼고, 아낀 예산으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서정분)은 지난 15일 학업중단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주풀무원다논 코리아, 무주양수발전소에서 지역특성화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된 지역특성화프로그램 1234'는 우리고장의 산업체, 역사유적지, 축제, 명산등반,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기관을 방문하고 체험을 하며 우리고장의 구석구석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꿈드림대상자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단절됨에 따라 경험하지 못하는 학창시절의 추억거리를 마련하고, 또래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은 학업 숙려제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정분 센터장은 "꿈드림청소년들이 지역특성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고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바라며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꿈드림사업 관련 신청 및 문의는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63-324-6688, 323-7717)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톡톡

장수군, 지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방역 만전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최근 유행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매개체인 숲모기의 활동시기에 맞춰 당초 5월부터 운영해 온 하계방역기간을 4월로 앞당겨 11월까지 연장 운영, 하수구, 물웅덩이,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읍면 소재지권과 마을단위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수군의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 3개반 19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편성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24시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신고·보고·진단검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해빙기 안전지킨다

낙석 · 붕괴 우려지역 55곳 대상 합동점검

무주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낙석이나 붕괴가 발생하기 쉬운 급경사지 55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것으로, 군은 급경사지에 대한 낙석방지망이나 낙석방지책 등 보강시설과 구조물, 암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석 · 붕괴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도 · 시군 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담당 라동석은 "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빙기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6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31억 원(국비 16억, 도비 8억)의 사업비를 투입, 무주읍 대차지구와 부남면 봉길지구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개최

51개 사업 122억 9200만원 사업대상자 확정

완주군은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김중욱 소장, 완주군농촌지도자회 강덕규 회장을 비롯한 농업관련기관, 농업인 단체 회장 및 품목별선도농가 등 16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할 농촌지원분야 51개 사업 122억 9천 2백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심의 확정했다.

특히 완주군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 4명의 회장 및 관내에서 직접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4명의 위원과 완주군 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의회에서 추천한 윤수봉 의원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중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에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 계획된 로드맵에 의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기여함은 물론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農토피아 완주'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득작목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 산서면 노인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산서면 노인회(회장 윤경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6만원 기탁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윤경호 회장은 "각 마을 경로당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회를 중심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역 인재양성 힘쓴다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내달 7일까지 장학생 모집

진안군이 지역과 사회발전의 주역이 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진안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며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에 진안장학숙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개관 10년째를 맞은 진안장학숙은 진안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뒷받침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도내에서 유일하게 개관하였다. 올해는 고교 졸업생 13명이 전북대를 비롯 도내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

진안장학숙은 4명의 사감이 24시간 입사생을 관리하며 성적을 높이기 위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다. 모두 82명(남41, 여41)을 선발하는 2016년 입사생 모집에도 110명의 학생이 몰렸다. 군은 16일 선발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진안시탕장학재단의 과감한 장학금 지원과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교육예산의 꾸준한 확대로 우수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장학생 접수는 오는 3월 7일까지이며 모집예정인원은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52명 총 82명으로 지원금은 1억 5천만원이며, 3월말 장학생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생활민원팀, 저소득층 난방시설 보수

진안군 생활민원팀이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를 이겨내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군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발벗고 나섰다.

생활민원팀은 지난 12일 암 투병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둬 동절기 난방시설과 상수도가 동파되어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향면 신송리 외유마을 박모씨(73)댁의 소식을 접하고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파손된 난방설비 교체 및 상수도 해빙 작업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또한 정천면 봉학리 학동마을 길모씨(76)댁의 연탄보일러가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자 보일러를 신속하게 교체해 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군은 2006년 생활민원팀 신설 후 현재까지 22,110건의 생활 불편사항을 접수 해 신속히 방문 처리하였으며, 지난해는 보일러 186건, 집수리 153건, 전기시설 160건, 상?하수도 99건, 가로등 1,695건, 기타 33건 등 2,326건의 다양한 생활민원을 해결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조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16일 오전 10시 완주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에 들어갔다.

정성모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해를 맞이해 2015년 군정 업무 추진 중 발생하였던 각종 시행착오를 금년에는 되풀이 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새해 들어 완주군의회가 나아 가야 할 세 가지 의정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 둘째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상생발전, 셋째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